

# 정치경제학 교과서 쏟아져 나온다

소련 과학아카데미版이 주류 ... '페레스트로이카' 계기로 내용에 편차

지난 年代가 갖고 있는 우리사회 특유의 역동성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정치경제학 관련도서가 이즈음 서점가에서 '과잉공급' 현상을 빚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대부'인 소련의 정치경제학 교과서만 해도 10여종에 이르고 있고 동구권을 비롯, 제3세계의 이론서도 다양하게 기획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정치경제학 도서들은 일단 마르크스의 「자본」이 확립한 학급을, 즉 자본주의가 하나의 생산양식으로서 역사적으로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과 그것의 최고·최후의 발전단계인 제국주의에 도달했다는 인식을 계승하면서 더 나아가 사회주의사회 성립의 합법칙성과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에 대한 이론적 틀을 밝히고 있다.

그간 이념의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밀수'되어 운동권의 이론적 빈혈증세에 대한 '수혈'에 그쳤던 정치경제학 도서들이 이처럼 활발히 소개된 것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열풍에 자극되어 사회주의 내부의 시각으로 개혁의 경제적 기초를 바라보고자 하는 지적 욕구에 힘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경제학에 대한 체계적 학습은 "단순히 식민지반봉건사회론 / 반제반봉건 PDR론 또는 식민지반자본주의론 / 반제NDR론을 논파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론적 입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새로운 조류들—특히 '순수' 국가독점자본주의론 / '순수'PDR론 그리고 나아가 중진자본주의론 / CDR론—이 전제하고 있는 사회주의관을 폭로하는데 결정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는 윤소영교수(한신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변혁세력의 논쟁적인 이념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교조주의에 발목잡힌 '개혁' 이전의 교과서

지금까지 출간된 정치경제학 도서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이 소련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에서 교과서 수준의 입문서를 목적으로 집필되었다는 점 ▲페레스트로이카를 분수령으로 삼아 그 전후의 교과서 내용이 다르고 집필당시 소련사회의 역사적 위치에 대한 소련공산당의 공식견해에 종속되어 씌어졌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정치경제학」(김윤환 편역, 인간사, 1986, 전4권)은 국내에 처음 소개된 소련 교과서로서 원전과 함께 「경제학교과서의 문제점」(일본사회사상연구회 편, 중앙공문사, 1956)을 첨가하여 비판적 수용을 유도한 책. 소련에서

그간 이념의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밀수'되었던 정치경제학 교과서들이

최근 활발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이 주장한

자본주의 종말설을 계승하고 있는

이 책들은 주로 사회주의 성립의

합법칙성과 경제법칙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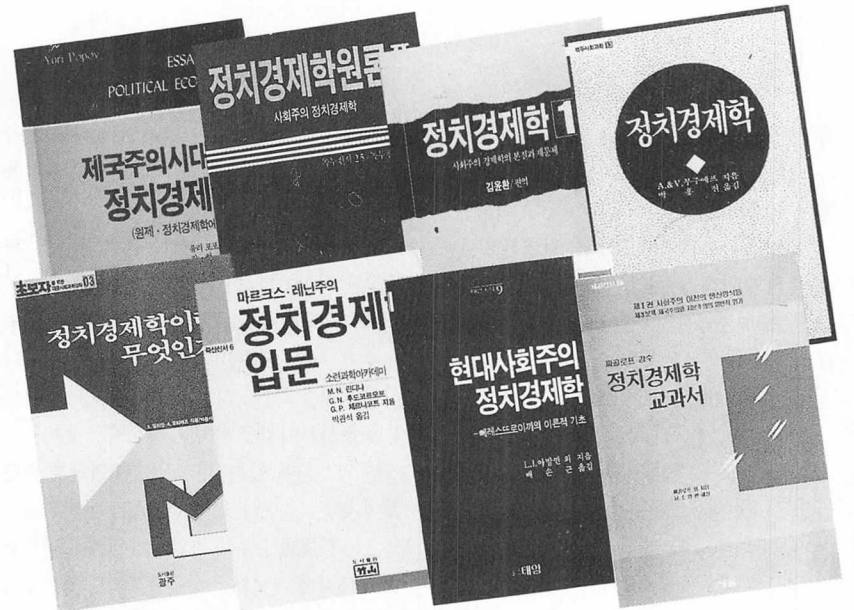
이론적 틀을 폭넓게 밝히고 있다.

도 정치경제학 교과서로서는 최초로 집필된 책이라 교조주의적 집필태도를 비롯,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카르프가 편집한 「정치경제학 교과서」(윤소영 옮김, 새길, 1989)는 사회주의경제학 체계화의 한 정점이라고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국내 연구자들에게도 주목받아온 책이다. 자본주의경제학의 단서적 범주가 '상품'이라면 사회주의 경제학의 단서적 범주는 '계획성'이라고 파악했다. 소유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종래의 역사기술적인 서술구성을 철저히 비판하고 「자본」의 논리적 서열구성을 사회주의 경제학에 대응시키면서 독자적으로 집필했다.

「정치경제학」(편집부 옮김, 녹두, 1989)은 코즐로프를 중심으로 한 소련과학아카데미 연구소 연구원들이 1977년 공동집필한 것으로 소련의 발전단계를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직전의 단계라는 의미의 '발달한 사회주의 단계'로 규정된 제25차 당대회 공식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씌어졌다. 따라서, 이 책은 공산주의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물질적·기술적 기초를 창출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입문」(박관석 옮김, 죽산, 1989)은 소련사회가 이미 사회주의 건설국면을 완료, "대규모의 공산주의 건설을 시작하려는 발달된 사회주의 국면"이라는 견해에 기대서 씌어졌고, 정치경제학(A.&V. 부주에프 지음, 박홍진 옮김, 백두, 1989)도 이러한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제국주의시대의 정치경제학」(유리 포포프 지음, 김현수 옮김, 아침, 1985)은 정치경제학의 기본개념으로 발전도상국의 사회·경제·문화문제를 제국주의 정책과 관련해서 분석,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많은 책. 풍부한 예증과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발전도상국 미래에



서점의 점두에 나와있는 정치경제학 교과서들. 소련과학 아카데미에서 저술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한 근거없는 '낙관주의'나 '막다른 골목'의식을 동시에 배격하면서 '새로운' 사회건설을 통해서만 쫓겨야 할 난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의 소련교과서에 대해 배순근씨(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는 "실생활로부터 유리된 이론적 경직성으로 인해 소련경제의 심부까지 침투한 관료주의적 폐해의 고질로 인한 성장의 정체라는 현실을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발전법칙에 입각,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중양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명령적 체계의 시인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다시 씌어지고 있는 정치경제학 교과서

국제적인 신데타트기류가 소련의 '개혁과 개방'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그러나 동구를 포함한 사회주의권의 전반적인 경제질서 재편의 동기가 무엇이며, 개혁의暖流를 탄 '사회주의號'의 방향타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여건에서 「현대사회주의 정치경제학」(아발긴 외 지음, 배순근 옮김, 태암, 1989)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론적 기초를 해명함으로써 이같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 주고 있다.

기존의 교과서와는 달리 사회주의 건설의 총체적 과정에서 체득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페레스트로이카의 논리와 체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사회주의경제학의 이론적 체계화를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 '보다 높은' 사회주의 발전단계를 겨냥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기존의 교조주의나 편견을 대담하게 배제한 이 책은 독자적인 체계구성 및 방법론에 힘입고 있다. 기왕의 이론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현대사회주의에 있어서의 경제체제, 재생산, 경제메카니즘의 기능구조가 치밀하게 분석되어 있다.

앞의 책이 페레스트로이카 초기단계를 반영하고 있는 시의적 한계가 있다면 국내에서 번역이 진행중인 「정치경제학」(소련과학아카데미)은 소련에서 1989년에 출간되어 소련사회 전반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86년 소련공산당에서 채택된 새 강령인 '발전된 사회주의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소련 정치경제학 교과서 분석을 통해 유영구씨(동서문제연구소 연구원)는 "소련의 경우 사적 자본의 도입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하려는 동유럽 경우와 같은 사회주의적 부문과 자본주의적 부문의 공존을 의미하는 혼합경제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소련경제학계에서 진행되는 이론적 혁신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출간될 소련교과서의 내용이 상당히 새로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박관석교수(목포대)는 "사회주의경제에 있어서의 노동생산성과 경제효율의 측정방법, 가격과 이윤의 경제적 역할, 그리고 신용화폐제도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소련 교과서의 주조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권우 기자